

| 2023. 7. 25 (Tue)

은행 Analyst 조아해

02. 6454-4870

like.cho@meritz.co.kr

RA 조혜빈

02. 6454-4905

hevin.cho@meritz.co.kr

News

'서민금융' 표방 카카오·K뱅크 '주담대' 치중…새 규제 고심

한겨레

<https://url.kr/y5jgh6>

인터넷전문은행의 중·저 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

이들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불리기에 열중하면서 해당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분석

주택담보대출, 고정금리 선호 주춤…금리 인하 기대하는 듯

한겨레

<https://url.kr/v3cw6i>

4대 시중은행이 6월 신규 취급 주담대 중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은 평균 79%로 5월 대비 4%p 감소

이 비중이 70%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

은행 대출 문턱 '넘사벽'…신용점수 900점도 '평균 미달'

데일리안

<https://zrr.kr/jtjl>

5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반 년 만에 20점 넘게 오르면서 920점을 넘어섬

은행들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

디폴트옵션 개시…은행권, 초반부터 기싸움

아시아경제

<https://zrr.kr/aptv>

지난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초장부터 은행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

신한은행은 상품 판매액을, KB국민은행은 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시장을 지키기 위한 수성전에 나선 양상

올 들어 보험사에 무슨 일이?…채권매입 작년 3분의 1 미만으로 '뚝'

위키리스크

<https://zrr.kr/l8xV>

1~6월 채권 순매수 8조30억원…작년 동기대비 3분의 1 아래로

작년 말 저축성보험 등 대거 만기도록 영향…4월 이후로 회복세

현대해상·삼성생명도 2건에 불과…‘배타적사용권’ 시들해진 이유는

CEO스코어

<https://zrr.kr/l8xV>

올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9건…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‘뚝’

배타적사용 심의 결과 살펴보니…대다수가 3개월 독점

상반기 주식 발행 85% 감소

매일경제

<https://zrr.kr/JRZN>

올해 상반기에 채무 연장을 목적으로 한 채권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남

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채권 발행을 통한 만기 연장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

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단기성과에 치중…금감원 "자율개선 유도"

한국경제

<https://zrr.kr/Rh3f>

금감원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

부동산 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한 형태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